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세계시민교육에의 시사점 탐색*

최윤정** · 윤노아***

요약

본 연구는 2022학년도 기준 전국 16개 시·도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중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가장 직접적·구체적·심층적으로 반영한 교육과정이다. 분석 결과, 전국 총 77개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에서 국제 계열 전문교과 148개 과목이 운영되어 학교별 평균 1.92개 개설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체 11개 과목 가운데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의 개설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고, ‘국제 경제’가 16.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수업의 12.8%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평가 방식으로는 지필평가 25%, 수행평가 75%의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88.5% 이상의 수업에서 50% 이상의 수행평가 실시 비율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교육과

* 이 논문은 2022년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고교 학점제 대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사회과 교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부 내용을 반영·재구성한 결과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교신저자), yoonjung.choi@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noah07@ewha.ac.kr

정 운영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기회와 한계를 고찰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에 기초한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주제어 :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I. 서론

세계시민교육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제도화·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확산적 현상이다(Choi, 2023). 한국은 국가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모범 사례’이자 ‘선도국가’로 알려져 있다(Cho & Mosselson, 2018; Choi & Kim, 2020).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세계시민 양성의 목표를 담아내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교육부, 2022a: 5)을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주요 인간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도덕, 국어 등 교과 수준에서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다(김형렬 외, 2020; 윤노아, 최윤정, 2017; 이경한, 2018).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중 세계시민교육의 지향점과 내용을 가장 직접적·구체적·심층적으로 반

영한 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이후 특목고)인 국제고등학교(이후 국제고)에 적용되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이후 ‘국제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명칭과 범주의 변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반복해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 I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고, 일반고등학교(이후 일반고)에서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학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배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정 진로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이 관련 교과의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 교과특성화학교(임종헌 외, 2021: 7)에서도 국제 계열 전문교과에 대한 학생 접근성 및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 중이다(이주연, 이민형, 2022). 세계시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 그리고 다양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가치를 내면화시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양하는 교육”으로(교육부, 2015.3.20.), 학교 교육에서 인지, 사회·정서, 행동 영역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는 “국제 교과와 관련한 특성화 과목이 일정 단위 이상 편성되고 관련된 심화 과목이나 탐구, 체험 중심 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학교”(주주자, 2020: 154)라는 측면에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 행동, 실천의 영역을 아우르며 세계시민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자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확장·실시할 수 있는 핵심 대상이다.

국제 계열 전문교과 수업이 다수의 일반고, 특히 국제 교과특성화 학교에서 개설되어 세계시민교육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과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

떻게 개설·운영하고 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전국 16개 시·도의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국제 계열 전문교과 11개 과목의 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역, 운영 방식, 개설 학년,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에 기초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은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제에 관한 교과 교육과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교육부, 1997: 25). 4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시기별 강조점 및 과목 편제는 변화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적 소양을 지닌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김정호 외, 1997; 김대훈, 2018).

교육과정 시기별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와 과목 편성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로 편성된 국제 계열 교육과정은 2009 개정 시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되며 사회과 선택 심화

<표 1>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 시기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1997)		2009.12		2011.08	
상위 구분	전문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	전문교과 사회과 선택교육과정 심화과목			
과목	국제 이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비교 문화, 국제 문제, 인류의 미래 사회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세계 문제	국제 및 한국 사회의 이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 이해	한국어,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사회	한국어,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사회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관점 형성
	외국어	영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독일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영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아랍어 강독, 독일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기타	과제 연구, 정보 과학, 예능 실습, 기타	정보 과학, 예능 실습	국제 사회 탐구의 실제 사회 과제 연구	

※ 출처: 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

과목으로 조정되었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전문교과 I로 분리되었다(김대훈, 2018; 박은아 외, 2015a). 과목 구성도 달라졌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영역을 포함한 22개 과목으로 출발하여, 2007 개정 시기에는 과목 세분화·전문화의 요구에 따라 I, II로 계열화되고 과목 수도 25개로 증가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계열이 분리되고, 일부 과목 통합 및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사회 과학 방법론’의 신설과 함께 11개 과목으로 재편성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신설 및 통폐합과 함께 ‘국제 및 한국 사회의 이해’, ‘국제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관점 형성’, ‘국제 사회 탐구의 실제’의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격은 세계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국제이해교육의 기반 위에서 …(중략)… 지역·국가·세계 차원의 시민으로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교육부, 1997: 25),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 이해와 국제 이해의 바탕 위에 전문적인 지식과 열린 가치관을 함양하여 지역, 국가,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세계 시민(global citizen)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교육인적자원부, 2007: 2), “세계 시민(글로벌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국제 전문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교육부, 2015: 4)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1개 과목 목표를 통해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세계 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반영,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2015 개정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과목 목표

번호	과목명	목표
1	국제 정치	... 새로이 전개되는 국제 정치 현상에 적응하는 능력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적 태도 를 갖추도록 한다.
2	국제 경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 경제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세계 시민을 육성 한다.
3	국제법	... 국제법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여 다양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기르도록 한다.
4	지역 이해	... 지역의 실체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도록 한다.
5	한국 사회의 이해	... 세계 사회에서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 전문가 를 양성 ...
6	비교 문화	... 세계 시민의 자질과 능력 을 습득 ...
7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을 함양한다.
8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종합적 시각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세와 역량 을 갖추도록 한다.
9	현대 세계의 변화	...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 를 기르도록 한다.
10	사회 탐구 방법	... 국제 사회 현상 의 과학적 탐구 ... 일상생활 속의 문제 해결...
11	사회과제 연구	... 지구촌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를 심층적으로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체제 개편 및 교과 재구조화와 함께 국제 계열 전문교과 I 이 보통교과로 편입되었다. 전문교과로 편제된 11개 과목은 사회 교과(군) 진로 선택 과목 ‘국제 관계의 이해’와 융합 선택 과목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로 축소·통합되었다(교육부, 2022b).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바, 이러한 변화가 다수 학습자에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을 확장할 것인지, 또는 전문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지위와 다과목 편제를 통한 심화학습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의미와 교육과정 운영 특징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인 국제고는 1995년 정부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고교 유형 다양화 및 특성화 학교 설립이 포함되어서 등장하였다. 1998년 부산에서 처음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8개의 국제고가 운영되고 있다(김대훈, 2018; 이덕난, 2022).

그동안 국제고가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점 플랫폼이자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실천적 운영 주체였다면, 2018년 이후로는 일반고, 특히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로 이러한 목표와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는 교과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목표로 지정·운영되는 교과특성화학교 중에서도 국제 계열 진로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지닌 학생이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칭

한다(김주아 외, 2022). 기존에 과학 및 예술·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과특성화학교는 2016년도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의해 사회, 제2외국어, 기술, SW, 국제, 융합 등으로 교과가 확대되었고, 2020년도부터 기존 ‘교과중점학교’ 명칭이 지금의 ‘교과특성화학교’로 변경되었다(임중헌 외, 2021: 3-4).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경우 2019년도에 23개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32개교로 증가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 융합을 제외한 교과 영역으로는 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주아 외, 2022: 14).

교과특성화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편성 단위 중 30% 이상(86단위 중 26단위)을 특성화 관련 교과로 편성·운영할 것이 권장된다(임중헌 외, 2021: 24).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경우, 기존에 국제고에서 해왔던 국제 관련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과목 개설, 탐구 및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일반고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특성화 과목 개설 및 맞춤형 수업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고교가 연합한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인수·주문형·심화 선택 과목이 개설·운영되기도 한다(김주아 외, 2022: 7-8). 학생들의 국제 계열 학업 설계 및 진학·진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주주자, 2020). 소수의 우수 학업 성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목고가 아닌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국제 계열 전문교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확장성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하는 것은 최근 변화하는 학교 유형과 교육과정 다양화 흐름에 따른 시의적절하고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고찰

1)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성과 체제의 변화, 전문가 협의회 및 공청회 결과 등을 논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의 연구보고서가 대다수를 구성한다(김정호 외, 1997; 박은아 외, 2015a, 2015b; 박주현 외, 2017; 이명준, 박인정, 백영선, 2006).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제 계열 교육과정 도입 및 전문교과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현장 운영을 위한 교과서 개발, 교사의 적극적 참여, 실질적인 평가 방안의 모색,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학술적 논의는 현행 교육과정 개정 시기인 201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개정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이해’와 ‘국제법’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졌다(김대훈, 2018; 정상우, 2015).

학교 현장에서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운영 사례를 탐구한 실증 연구도 소수이지만 실시되었다(김기남, 2022; 김진희, 김희경, 박형민, 2018). 김기남(2022)은 국제고의 ‘지역 이해’와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수업에서 글로벌 이슈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이 함양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일반고 ‘사회과제 연구’ 과목의 클러스터형 수업에서 3년에 걸쳐 세계 문제에 관한 심화학습을 진행한 김진희, 김희경, 박형민(2018) 역시 국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다각적 인식 함양,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전환을 수업의 효과로 제시하였다. 국제 계열 교육과정에 기초한 심층 탐구 학습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함양에 유용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의 개설·운영 현황에 대해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한 이주연 외(2021)는 국제고 대상 과목 개설 현황에 대한 양적 지표를 제공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국제고에서는 학교 평균 27건의 국제 계열 수업이 개설되었고,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의 개설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며, 국제 계열 과목의 개설 여부 및 수치를 넘어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에 관한 선행연구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에 관한 연구의 저변은 아직 넓지 않다. 2020년도에 교과특성화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인 교과중점학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교과중점학교의 운영 실태 및 효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박지혜, 2020; 한혜정, 2012), 다수가 과학중점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류성창, 윤진, 이윤옥, 2014; 이재림, 이현서, 2017; 최임정, 이현주, 2021).

주주자(2020)의 사회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현황 분석 연구는 분석 대상에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유일한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관련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에서는 사회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양교과, 전문교과 등의 과목이 다수 개설되었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강좌개설,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목에 따른 개설 학년 및 단위 수 격차, 등급제 내신 상대평가의 어려움, 진로 교육 미비와 같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교과중점학교 및 특성화학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특성화 교과 영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에 따른 체험 활동, 심화된 학습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은 강점으로 나타난다. 반면 우려도 존재한다. 중점·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효과가 소위 ‘블랙박스’처럼 인식되어 온전히 단위 학교의 책임으로 남고, 과목 이수 체계 구성 및 위계화, 교육과정 설계 등에 대해 단위 학교 교사들의 역량에 의지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주주자, 2020: 159).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조사 범주 및 대상 선정, 학교 특성 분석, 교육과정 편제 분석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조사 범주 및 대상 선정은 2022학년도 기준, 전국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명단을 수집·확보하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방문, 정보 요청 공문 발송, 담당 장학사 대상 유선 문의 등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학교 명단

을 수집하였다.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따라 상이한 명칭으로 운영된다. 단일 학교에서 2개 이상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거나 여러 교과를 융합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화)’, ‘글로벌’, ‘International’ 등 관련 용어를 사용한 교과특성화학교를 우선 선별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확인하여 국제 분야와 연관성이 파악된 경우에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교과특성화학교 지정·운영 현황’ 자료와 교차 비교하여 최종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2단계 학교 특성 분석 단계에서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누리집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방문, 조사 대상 학교의 지역, 설립 유형, 학생 수, 교원 수 등을 조사하였다. 학교알리미는 초·중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에 대한 정보가 공시된 교육부 운영의 공신력 있는 자료 제공원으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배경의 이해·비교·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3단계 교육과정 편제 분석 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표, 과목별 진도계획서, 교과 평가계획서 등의 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각 단위 학교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다수의 문헌을 분석한 이유는 서류상·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과목이 아닌, 실질적으로 편성·개설되어 과목이 운영된 사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헌 자료로부터 과목명, 대상 학년, 운영 방식, 평가 방식을 분류하였으며,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여부와 대상 학년 등을 조사하여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 및 학교 배경은 <표 3>과 같다. 2022학년도 기준 전국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는 총 77개교로 ‘국제화’, ‘글로벌’ 관련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사회(국제)’, ‘글로벌 사회(창의)융합’과 같은 융합 교육과정 특성화 사례가 55개교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설립 유형은 국·공립학교가 45개교, 사립학교가 32개교이다. 학생 수가 500-1000명인 학교가 64개교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교원 수는 50-70명인 학교가 46개교였다. 종합해보면 다수의 국제 교과특성화학교가 학생 수 500명 이상, 교원 수 50명 이상의 상대적으로 중·대규모인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사립학교가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조사 결과, 2022년도 기준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는 전국 17개 중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운영되었다. 경기 16개교, 인천·충북 각 10개교, 충남 7개교, 대구 6개교, 부산 5개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과반수 이상이 위치하였고, 전남·경북·경남·제주 등 0-1개교의 분포를 보인 남부 지역과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다만 서울에서 1개교가 운영되어 인구 규모와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국가 수도로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이들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과목 개설 현황 분석에 대해 <표 4>와 같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11개 과목의 개설 빈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국 17개 시·도별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지역 분석을 실시하

<표 3> 분석 대상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연번	지역	명칭	설립 유형	학생 수	교원 수	연번	지역	명칭	설립 유형	학생 수	교원 수
1	서울	정보·국제경제 융합	사립	720	68	30		글로벌 사회 융합	공립	561	61
2		글로벌사회융합	공립	504	57	31	강원	글로벌 IT 융합	사립	604	53
3		글로벌창의융합	사립	550	52	32		글로벌SW융합	사립	836	64
4	부산	글로벌 사회	사립	415	53	33		글로벌시티즌	공립	777	64
5		국제사회 융합	사립	665	65	34		글로벌정보사회	공립	746	72
6		ISL: International Society Leader	사립	515	57	35		글로벌리더십중점	공립	668	59
7		글로벌경영	사립	649	73	36		글로벌창의융합	공립	545	51
8		국제경제 융합	사립	753	61	37	충북	글로벌리더십	공립	620	64
9		국제	공립	962	88	38		글로벌시민경제	사립	776	56
10	대구	국제화	사립	809	77	39		국제인문사회	공립	844	67
11		국제경영	공립	319	44	40		국제문화사회융합	공립	735	64
12		국제	사립	718	64	41		국제·인문융합	사립	489	46
13		글로벌국제이해	사립	796	67	42		글로벌경제사회	공립	871	67
14		글로벌통상융합	공립	890	70	43		국제·제2외국어융합	공립	1070	73
15		글로벌경제통상	사립	735	66	44		국제화	공립	591	65
16		국제경제통상	공립	765	66	45		국제화	사립	779	71
17		국제경제통상	공립	753	70	46		국제화	공립	952	83
18	인천	국제통상	공립	840	84	47		국제화	공립	663	57
19		국제경영	사립	643	55	48		국제화	공립	695	74
20		글로벌경영	사립	560	52	49		국제화	공립	453	48
21		국제경영	공립	626	56	50		국제화	공립	690	65
22		국제사회	공립	690	69	51	경기	국제화	사립	744	63
23		국제사회융합	사립	760	62	52		문화콘텐츠국제화	공립	1069	80
24	광주	국제정치경제	사립	810	69	53		국제사회융합	공립	803	69
26		국제정치	사립	648	64	54		미래사회글로벌 창의융합	공립	704	70
28		ESD 글로벌인재중점	공립	751	70	55		글로벌사회융합	사립	379	49
27	대전	국제사회	사립	450	57	56		국제화	공립	835	73
28		국제사회	사립	723	65	57		국제융합	공립	614	65
29		국제사회	공립	1060	95	58		국제화	공립	703	71

<표 3> 분석 대상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계속)

연번	지역	명칭	설립 유형	학생 수	교원 수	연번	지역	명칭	설립 유형	학생 수	교원 수
59	울산	국제경제·정치	공립	284	34	69	충남	국제정치경제	공립	1164	85
60		국제경제	사립	543	56	70		글로벌인문사회	공립	769	79
61	세종	A.I.국제교류	공립	182	30	71	전북	인문국제융합	사립	583	53
62		사회국제화	공립	819	75	72		국제문화컨텐츠	국립	696	67
63		CBL 국제화	공립	100	13	73		국제경제융합	공립	1017	89
64	충남	국제소프트웨어	공립	1153	84	74	경북	국제융합	공립	761	74
65		국제관계	사립	1038	65	75		사회·국제융합	사립	393	38
66		사회국제융합	사립	549	54	76	경남	글로벌융합	공립	531	55
67	제주	사회국제	공립	937	85	77	제주	국제화	사립	560	41
68		국제관계	사립	967	66						

였다. 셋째, 운영 방식은 ‘단독’(단위학교 자체 교육과정 운영 및 과목 개설)과 ‘공동’(지역 내 고교가 협력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합동 개설·운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편제표 및 평가·진도 계획서에 명시된 학년 단위를 기준으로 과목 개설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평가 방법은 지필·수행평가 비율과 수행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조사·분석하였다.

<표 4> 분석 기준

번호	분석 기준	내용
1	개설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제 계열 전문교과 11개 과목
2	지역	17개 시·도
3	운영 방식	단독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4	개설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무학년(1·2학년, 2·3학년, 1·2·3학년)
5	평가 방법	평가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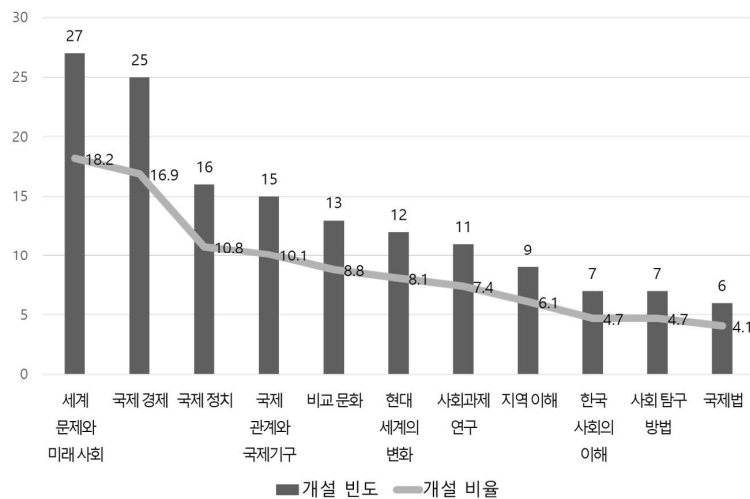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1. 전국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운영 현황

17개 시·도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운영 현황 분석 결과, 전국 77개교에서 총 148개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이 개설·운영되어 학교당 평균 1.92개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교과특성화학교의 경우 3년간 자율편성 단위의 30%(26단위) 이상의 특성화 과목 개설을 권장한다(임중헌 외, 2022: 24). 학교별·과목별 편차가 존재하나, 한 과목이 주로 4~6단위에서 개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주주자, 2020: 167), 평균 1.92개의 과목 수는 약 7~12 단위에 해당해 권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상당수가 사회, 미디어 등과 연계한 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개설 가능 중점교과에 사회 교과(군) 공통·일반·진로 선택 과목과 더불어 교양교과, 시·도교육청 인정과목 등이 포함됨을 고려하면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 빈도가 높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일면 해석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주주자, 2020: 165)에서도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에서 시·도교육청 인정과목인 ‘세계시민’과 교양교과 ‘실용경제’ 과목의 개설 빈도가 높았다는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과목별 종합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국제 계열 11개 과목 가운데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가 27(18.2%)건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국제 경제’ 25(16.9%), ‘국제 정치’ 16(10.8%),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15(10.1%), ‘비교 문화’ 13(8.8%), ‘현대 세계의 변화’

12(8.1%), ‘사회과제 연구’ 11(7.4%), ‘지역 이해’ 9(6.1%), ‘한국 사회의 이해’와 ‘사회 탐구 방법’이 각각 7(4.7%), ‘국제법’ 6(4.1%)의 순서로 나타났다. 2023년도 수능에서 사회 탐구 영역 선택 과목 가운데 ‘경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의 비율이 1.26%로 선택 과목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였을 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9.5.), ‘국제 경제’의 개설 순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경제’와는 다른 학생들의 흥미나 학습 수요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 현황

2. 지역 분석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운영 현황의 지역별 분석 결과, 차이와 특징이 확인되었다(<표 5> 참조). 총 35건의 과목 개설을 보인 경기, 25건 개설된 대구, 24건 개설된 인천에 비해, 1건 개설된

[illegible]

시·도	국제 정치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국제 관계와			현대 세계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계				
	국제 정치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국제 관계와			현대 세계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0	0.0	1	4.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부산	2	12.5	1	4.0	0	0.0	1	11.1	1	14.3	1	7.7	1	3.7	0	0.0	0	0.0	1	14.3	0	0.0	8	5.4		
대구	1	6.3	3	12.0	0	0.0	3	33.3	2	28.6	5	38.5	4	14.8	2	13.3	3	25.0	1	14.3	1	14.3	1	9.1	25	16.9
인천	2	12.5	7	28.0	1	16.7	1	11.1	1	14.3	2	15.4	2	7.4	4	26.7	1	8.3	0	0.0	3	27.3	24	16.2		
광주	2	12.5	1	4.0	1	16.7	0	0.0	0	0.0	0	0.0	0	0.0	1	6.7	0	0.0	1	14.3	0	0.0	6	4.1		
대전	0	0.0	1	4.0	0	0.0	0	0.0	0	0.0	1	7.7	2	7.4	1	6.7	0	0.0	0	0.0	0	0.0	5	3.4		
울산	0	0.0	1	4.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세종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1	3.7	0	0.0	2	16.7	1	14.3	1	14.3	1	9.1	6	4.1
경기	3	18.8	5	20.0	2	33.3	0	0.0	1	14.3	3	23.1	9	33.3	5	33.3	3	25.0	2	28.6	2	18.2	35	23.6		
강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충북	2	12.5	1	4.0	0	0.0	1	11.1	1	14.3	0	0.0	4	14.8	1	6.7	2	16.7	1	14.3	1	14.3	1	9.1	14	9.5
충남	2	12.5	3	12.0	0	0.0	0	0.0	1	14.3	0	0.0	2	7.4	0	0.0	0	0.0	0	0.0	2	18.2	10	6.8		
전북	1	6.3	1	4.0	0	0.0	1	11.1	0	0.0	0	0.0	2	7.4	0	0.0	1	8.3	0	0.0	0	0.0	6	4.1		
전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경북	1	6.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경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제주	0	0.0	0	0.0	1	16.7	1	11.1	0	0.0	1	7.7	0	0.0	1	6.7	0	0.0	0	0.0	1	9.1	5	3.4		
합계	16	100.0	25	100.0	6	100.0	9	100.0	7	100.0	13	100.0	27	100.0	15	100.0	12	100.0	7	100.0	11	100.0	148	100.0		

경북과 서울,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은 강원, 경남, 전남과 같이 지역 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에서 전체 과목 개설의 약 1/4이 이루어졌고, 경기, 대구, 인천의 개설 비율의 합이 전체의 약 56.8%로 국제 계열 과목의 개설이 3개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1개교의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면서 1과목(국제 경제)을 개설하여 수도권에서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및 국제 계열 교과목 수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제 교과특성화학교가 있음에도 0개 과목이 개설된 경남과 강원 지역도 존재한다. 한편, 제주의 경우와 같이 1개의 국제 교과특성화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단일 학교에서 5개 과목을 개설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과목별 지역적 특징도 발견되었다. 경기도는 전체 지역 중 ‘세계 문명과 미래 사회’ 개설 비중(33.3%)이 가장 높았고, 대구에서는 6개교 중 5개 학교가 ‘비교 문화’ 과목을 개설하여 타지역보다 해당 과목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10개교 중 7개 학교에서 ‘국제 경제’를 개설하였다. 자유무역지구, 국제공항이 위치한 서해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특징과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교육 전면화’를 정책 비전으로 삼아 ‘국제경제통상’, ‘국제통상’을 명칭으로 한 교과특성화학교가 집중된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유추된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20).

3. 운영 방식 분석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운영되는 ‘단독교육과정’과 지역 내 학교들이 과목 개설·운영에 참

여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분석하였다. <표 6>에 따르면 단독교육과정 수업 운영은 129건(87.2%),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은 19건(12.8%)으로 나타났다. 공동교육과정 중에서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 유형이 13건(8.8%), 온라인 유형이 6건(4.1%)으로 차이가 관찰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다. 대다수 지역에서

<표 6> 지역별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운영 방식

시·도	단독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합계	
			오프라인		온라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부산	8	100.0	0	0.0	0	0.0	0	0.0	8	100.0
대구	23	92.0	2	8.0	0	0.0	2	8.0	25	100.0
인천	24	100.0	0	0.0	0	0.0	0	0.0	24	100.0
광주	6	100.0	0	0.0	0	0.0	0	0.0	6	100.0
대전	4	80.0	1	20.0	0	0.0	1	20.0	5	100.0
울산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세종	6	100.0	0	0.0	0	0.0	0	0.0	6	100.0
경기	27	77.1	5	14.3	3	8.6	8	22.9	35	100.0
강원	0	-	0	-	0	-	0	-	0	-
충북	10	71.4	3	21.4	1	7.1	4	28.6	14	100.0
충남	8	80.0	2	20.0	0	0.0	2	20.0	10	100.0
전북	4	66.7	0	0.0	2	33.3	2	33.3	6	100.0
전남	0	-	0	-	0	-	0	-	0	-
경북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경남	0	-	0	-	0	-	0	-	0	-
제주	5	100.0	0	0.0	0	0.0	0	0.0	5	100.0
합계	129	87.2	13	8.8	6	4.1	19	12.8	148	100.0

단독교육과정을 통한 과목 개설 및 수업 운영이 보편적인 가운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의 6개 지역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경기, 충북, 전북 3개 지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시도되었다. 경기는 8개 수업(22.9%)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지역이었다.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비율은 6건의 수업 가운데 2건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한 전북(33.3%)에서 가장 높았으며, 동시에 전북은 공동교육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온라인 교육과정의 적극적 운영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격차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외곽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기, 소규모 학교가 분산되어 있고 인적·물적 인프라의 지역 내 격차가 큰 충북, 학교 간 물리적 거리가 멀고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가 나타나는 전북은 근거리 학교 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과목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상이한 지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표 7>에 따르면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사회 탐구 방법’ 과목은 개설 사례가 모두 단독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국제 경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된 과목이었다. 전체의 24%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었다. 이는 단위학교 개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교육 공동체를 통해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 경제’가 전체 11개 과목 중 개설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음을 감안하면, 공동교육과정의 이점을 통해 그동안 일반고에서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전문교과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표 7> 과목별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운영 방식

운영 방식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사회 변화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합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단독 교육 과정	14	87.5	19	76.0	4	66.7	9	100.0	7	100.0	13	100.0	24	88.9	13	86.7	9	75.0	7	100.0	10	90.9	129	87.2
	2	12.5	4	16.0	1	16.7	0	0.0	0	0.0	0	0.0	3	11.1	1	6.7	1	8.3	0	0.0	1	9.1	13	8.8
공동 교육 과정	0	0	2	8.0	1	16.7	0	0.0	0	0.0	0	0.0	0	0.0	1	6.7	2	16.7	0	0.0	0	0.0	6	4.1
	16	100.0	25	100.0	6	100.0	9	100.0	7	100.0	13	100.0	27	100.0	15	100.0	12	100.0	7	100.0	11	100.0	148	100.0

4. 학년 분석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 현황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82건(55.4%)이 3학년에 개설되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2학년 개설 사례는 56건(37.8%), 1학년 개설 사례는 2건(1.4%)이었다.

과목별로는 ‘비교 문화’(84.6%)와 ‘사회 탐구 방법’(85.7%)이 80% 이상의 비율로 3학년에서 개설되었다. 해당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기에 2학년에서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한 후 심화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권장·개설되었거나, 국제 계열 진로·진학과 연계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무학년 또는 학년 통합은 8건(5.5%)의 소수 사례로 파악되었다. 학년 장벽을 낮춘 수업 개설은 단일 학년에서 개설 인원이 충족되지 않거나 주문형 강좌, 창의적 체험활동, 비교과 활동 등과 연계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 학년에 구속됨 없이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습권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운영 방식별 특징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빈도가 2학년 과정(10건)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여러 학교의 연합 개설 방식으로 이루어져 정규 수업 시간보다는 방과 후, 야간, 주말에 운영되기도 하는 공동교육과정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대학 입시를 앞둔 3학년보다는 2학년에서 개설 빈도가 높은 현실적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무학년 8개 수업 사례 중 7건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된 점 또한 특징적이다. 학년별 경계를 낮추고 과목 개설에 대한 지역 공동의

<표 8> 학년별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 · 운영

학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1	3.7	0	0.0	0	0.0	0	0.0	2	1.4
2	8	50.0	11	44.0	2	33.3	3	33.3	2	28.6	2	15.4	13	48.1	7	46.7	3	25.0	1	14.3	4	36.4	56	37.8
3	6	37.5	13	52.0	3	50.0	6	66.7	5	71.4	11	84.6	12	44.5	7	46.7	7	58.4	6	85.7	6	54.5	82	55.4
무학년	2	12.5	1	4	0	0	0	0	0	0	0	0	1	3.7	1	6.6	2	16.6	0	0	1	9.1	8	5.5
합계	16	100.0	25	100.0	6	100.0	9	100.0	7	100.0	13	100.0	27	100.0	15	100.0	12	100.0	7	100.0	11	100.0	148	100.0

협력을 통해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학년 및 운영 방식별 국제 계열 전문교과과목 개설·운영 현황

시·도	단독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합계	
			오프라인		온라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1	50.0	1	50.0	0	0.0	1	50.0	2	100.0
2	46	82.1	5	8.9	5	8.9	10	17.9	56	100.0
3	81	98.8	1	1.2	0	0.0	1	1.2	82	100.0
무학년	1	12.5	6	75.0	1	12.5	7	87.5	8	100.0
합계	129	87.2	13	8.1	6	4.1	19	12.8	148	100.0

5. 평가 방법 분석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의 평가 방법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우선, 전체 수업에서 지필평가 25%, 수행평가 75%의 비중을 보였다. 수행평가 비율 50% 이상인 수업이 전체의 88.5%로 대부분의 수업에서 수행평가를 비중 있게 적용하고 있었다.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 100%를 반영하는 수업이 전체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도 괄목할만하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과목 개설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다는 점,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9등급제 상대 평가가 아닌 성취기준 도달에 대한 절대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반영된 영향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주현 외, 2017).

수행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은 ‘사회과제 연구’로 전체 90.9%

<표 10>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별 수행평가 비율

수행 평가 비율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	1	6.3	2	8.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2.0	
1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	0	0.0	1	4.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30	1	6.3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3	2.0	
40	1	6.3	3	12.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7	1	6.7	1	8.3	1	14.3	0	0.0	8	5.4			
50	0	0.0	2	8.0	0	0.0	1	11.1	3	42.9	2	15.4	1	3.7	3	20.0	3	25.0	2	28.6	0	0.0	17	11.5					
60	4	25.0	4	16.0	0	0.0	2	22.2	1	14.3	5	38.5	6	22.2	4	26.7	1	8.3	1	14.3	0	0.0	28	18.9					
70	3	18.8	3	12.0	0	0.0	1	11.1	0	0.0	1	7.7	4	14.8	0	0.0	2	16.7	0	0.0	0	0.0	14	9.5					
80	2	12.5	2	8.0	0	0.0	0	0.0	0	0.0	0	0.0	2	7.4	0	0.0	0	0.0	0	0.0	1	9.1	7	4.7					
9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	4	25.0	8	32.0	4	66.7	5	55.6	2	28.6	5	38.5	13	48.1	7	46.7	5	41.7	2	28.6	10	90.9	65	43.9					
미가입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합계	16	100.0	25	100.0	6	100.0	9	100.0	7	100.0	13	100.0	27	100.0	15	100.0	12	100.0	7	100.0	11	100.0	148	100.0					
평균	67.5		66.0		75.0		82.2		68.3		74.6		81.1		75.3		74.8		61.4		98.2		75.0						

가 수행평가 100%로 이루어졌다. 반면, ‘사회 탐구 방법’은 전체 57.2%가 지필평가 50% 이상을 적용해 지필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두 과목 모두 ‘국제 사회 탐구’에 중점을 두지만,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 및 기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회 탐구 방법’은 지필평가를, 국제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향하는 ‘사회과제 연구’는 수행평가를 주요하게 적용하는 차이가 드러났다.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운영에서 수행평가의 높은 비중이 확인된 바, 수행평가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표 11>에 따르면 수행평가 방식 가운데 주제 연구(연구계획서 작성) 및 발표, 논술, 보고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독서 및 서평 작성 순으로 6가지 방법이 전체 83.4%를 차지하였다. 주제 연구 및 발표, 논술, 보고서 작성의 방법이 절반 이상(62%)을 차지해 서·논술형 글쓰기(연구기반, 독서, 자료조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수행평가 방법

번호	수행평가 방법	빈도	비율
1	주제 연구(연구계획서 작성) 및 발표	81	23.6
2	논술	73	20.3
3	보고서	65	18.1
4	포트폴리오	27	7.5
5	프로젝트	26	7.2
6	독서 및 서평 작성	24	6.7
7	토론, 토의	20	5.6
8	NIE·기사 작성 및 논평	15	4.2
11	기타	25	8.2
	합계	359	100.0

면담, 비주얼씹킹, 사회참여 활동 등 소수이지만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도 수행평가에서 활용되었으며, 과목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존재한다(<표 12> 참조). ‘국제 정치’,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과목에서 모의 UN 총회가 시도된 점이 대표적이다. ‘사회 탐구 방법’과 ‘사회과제 연구’에서는 다른 과목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연구계획서 및 소논문 작성 위주의 평가가 다수인 점도 과목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표 12>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별 수행평가 대표 사례

과목명	주제 및 내용
국제 경제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술, 한국 및 주요국 경제 현황·무역·관세 정책 분석 연구
국제법	국제법 판례·국제 분쟁·베스트팔렌 조약 보고서 작성, 국내외 외교 정책 연구 및 발표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광고 제작, 세계 인권 신문 제작·인권 침해 고발 신문 제작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제 문제 해결 위한 국제기구 보고서, SDGs 모의 UN 총회

V. 논의 및 제언

연구 결과, 전국 16개 시·도에 위치한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77개교는 그동안 일반고에서 접근성이 낮았던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

과정의 다양한 과목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무학년 개설과 같은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과정 중심·절대평가 위주의 다양한 주제 기반 수행평가를 적용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한정된 개설 과목 수와 종류, 지역 편중 및 격차는 제약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취지와는 다르게 세계시민교육의 기회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제공되거나, 세계시민교육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목표와 핵심 주제를 종합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종합하여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및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운영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합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이들 학교에서 개설한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수의 평균은 1.92라는 미진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 격차로 인해 과목 개설 평균 수치가 낮아진 영향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에서 국제 계열 학습에 대한 학생 수요 맞춤형·심화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궁극적으로 표방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성찰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개설 과목이 일부에 치우친 현상도 두드러졌다.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경제’ 등 개설 빈도가 높은 과목과 ‘국제법’과 같이 개설 사례가 소수인 과목 간 편차도 크다. 국제 관계 속성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과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 해결을 탐색하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제법’ 과목보다 전 지구적 성격의 문제를 두루 다루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하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교육부, 2015: 23, 57). 이것이 학습

자 수요가 반영된 불가피한 현상인지, 교원 전문성 및 교수 역량에 좌우된 결과인지, 내신 등급 및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전략적 선택인지 등 다층적 요인에 대해 추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교과특성화학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제이해·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심층적 전문 교육과정을 활성화 하도록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및 국제 계열 전문교과 과목 개설이 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고 경상·전라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서 미비하게 나타나 지역 격차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교과특성화학교는 경기(16개교)와 인천(10개교)에서 전체(77개교)의 1/3 이상을 차지한 반면, 경북·경남은 각 1개교를 운영, 전남은 미운영하였다. 국제 계열 과목 역시 경기, 대구, 인천에서만 과반 이상(56.8%)이 개설되었다. 한편 서울은 1개교에서 한 과목 수업 개설에 그쳐 국가 수도이자 최대 인구 규모,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과 비교해 숙고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을 분석한 연구(유혜영, 김남순, 박환보, 2017: 23-24)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국제 계열 과목(35건)을 개설한 경기는 17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시민교육을 업무 영역으로 명시하고 전담 장학사를 둔 지역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 가운데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정 지역에서 관심과 실천이 저조하게 나타난 원인이 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완 등의 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할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주연, 이민형(2022)에서 제안한 바대로 해당 과목을 담당할 교원 수급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풀 구축, 교원 연수 및 학습 공동체 지원,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셋째,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무학년 개설의 사례가 세계시민교육의 확장성에 주는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과목 개설 비율은 전체 수업 대비 12.8%에 달했고, 특히 무학년 대상 수업은 대부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결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제 계열 교육과정의 편성이 교사 수급과 같은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고려할 때(박은아 외, 2015a), 연구 결과는 위와 같은 운영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역적 제약 조건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겸임교원 제도, 온라인 교·강사 인력풀 확보, 시설 및 장비 지원 등이 적극 지원될 필요가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유연한 과목 개설을 통한 학습 기회의 확대만큼 배움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실행과 더불어 양질의 콘텐츠 개발, 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에 따른 구조적 장벽 등의 현실적 과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박은아 외, 2015b; 이명준, 박인정, 백영선, 2006). 따라서 단위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의 부담, 온·오프라인 수업 제약의 극복 방안 마련과 수업 내용 및 교수·학습, 평가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인적·물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개설 학년 경향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는 전문교과 과목이 3학년에서 다수 개설된 것은 교육과정상 적합한 편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대 세계의 변화’는 사회 교과 일반 선택 과목 ‘정치와 법’, ‘세계사’에 비해 심화된 과정이며,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는 ‘사회·문화’와 차별화되므로, 심화·응용에 따른 계열성을 가지도록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국제 계열 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유기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학년에서는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시간이 도구화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주주자, 2020). 국제 계열 과목을 개설하고는 자습 혹은 수능 문제 풀이 시간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소위 ‘세특1)용’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학습 활동 및 결과물을 산출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양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국제 계열 관련 진학·진로 탐색에 유의미한 배움을 제공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뿐 아니라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평가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중요성이 커지며 새로운 교육자료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평가체계와 방법은 연구와 실천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았다(김진희, 김희경, 박형민, 2018: 90). 세계시민교육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교과 역량 구현을 위한 평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 전인적·총체적

1)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여 부르는 말

평가를 지향한다(박주현 외, 201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2015). 본 연구에서 지필평가(25%)보다 수행평가의 비중(75%)이 월등히 높고 배움의 내용 및 학습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수행평가 사례가 확인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수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과정 중심 평가가 시도되고, 평가의 방법이 보다 정교화되며, 이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대입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계시민 관련 내용을 부차적인 교육으로 여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과정 전반을 통해 배우고 평가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학술적·실천적 탐구의 노력이 요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 계열 전문교과 영역이 폐지되고, 하위 11개 과목이 사회 교과(군) 진로 선택 영역 ‘국제 관계의 이해’와 융합 선택 영역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으로 축소·통합된 것은 주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가 공식 교육과정상에서 독립적 전문교과로 명시되어 정규 과목을 통해 실시되던 세계시민교육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지, 또는 주요 교과 중점 과목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양질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기회가 될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7].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7). **국제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28]. 서울: 교육부.
- _____(2015).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24]. 세종: 교육부.
- _____(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세종: 교육부.
- _____(2022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주요 운영 사례집**. 세종: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28].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기남(2022). 세계와 소통하는 교실 빅퀘스천(Big Question) 프로젝트: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리 수업 방법의 개발과 적용. **한국지리학회지** 11(2). 한국지리학회. 201-217.
- 김대훈(2018). 국제계열 교육과정에서 지역이해 과목의 위상과 정체성 혼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한국지역지리학회. 591-603.
- 김정호, 김왕근, 성일제, 이근님, 이혁규, 조도근, 최석진, 노희방, 최병모 (1997). **제7차 국제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CR 97-3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아, 김지혜, 허가람, 김시형, 김하나, 유영숙, 윤창호, 이문경, 이시라, 임경옥, 주주자, 진수미(2022). **2021년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사례집**. 수탁연구자료 CRM 2022-40. 세종: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희, 김희경, 박형민(2018). 고등학교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통한 국제이해

- 교육 실천 사례분석과 쟁점: 경기도 A고등학교 ‘사회과제 연구’과목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3(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71-103.
- 김형렬, 유가현, 정진리, 신지선, 김동언(2020). 중·고등학교 도덕과 교과서에서의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 관련 내용의 변천: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도덕윤리과교육연구** 68.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23-254.
- 류성창, 윤진, 이윤옥(2014). 과학중점학교 운영 현황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05-328.
- 박은아, 김명정, 성경희, 송성민(2015a). 2015 국제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시민교육연구** 47(3). 한국사회교육학회. 99-122.
- 박은아, 김명정, 성경희, 송성민, 장준현, 주은옥, 최형우(2015b). **교과 국제교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연구 II**. 연구보고 CRC 2015-25-2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주현, 조대훈, 김용지, 황정숙, 정지만, 길현주(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제계열 평가기준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P 2017-5-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지혜(2020). 교과중점학교 운영 사례 분석 연구: 부천시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085-1108.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한국판 해제본**.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혜영, 김남순, 박환보(2017).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9(4). 글로벌교육연구학회. 3-33.
- 윤노아, 최윤정(2017). 2009 개정 교육과정 경제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화 관련 내용의 비판적 담화 분석. **시민교육연구** 49(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1-67.
- 이경한(2018).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지리와 여행지리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39-75.

- 이덕난(2022).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유형 개편의 쟁점 및 과제 분석. **교육법학연구** 34(3). 대한교육법학회. 77-102.
- 이명준, 박인정, 백영선(2006). **고등학교 국제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연구보고 CRC 2006-3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림, 이현서(2017).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6(3).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37-50.
- 이주연, 이광우, 최정순, 이민형, 유금복, 최성희, 윤기준, 김석영(2021). **고교 학점제 대비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문교과 구성 방안 연구**. 연구보고 CRC 2021-14.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주연, 이민형(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교과 I 개설 현황 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5(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58.
- 인천광역시교육청(2020). **인천교육 역점정책, 2021년 인천교육 역점사업**.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 임종현, 홍경화, 허가람, 임경옥, 정선호, 정부애, 김시형, 설이태, 조준연, 유기현, 우주은, 전우병(2021). **2020년도 고교학점제 일반고 기반조성 지원사업 교과특성화학교 사례집**. 연구자료 CRM 2021-26. 세종: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정상우(2015). 고등학교 <국제법>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법교육연구** 10(1). 한국법교육학회. 69-100.
- 주주자(2020). 사회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현황 분석 -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2(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53-188.
- 최임정, 이현주(2021). 과학중점학교 담당교사 관점에서 본 운영 효과 및 교육적 의의에 대한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2). 한국과학교육학회. 171-181.
- 한혜정(2012). 교과 중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30(1). 99-124.
- Cho, H. S., and J. Mosselson.(2018). Neoliberal Practices amidst Social Justice Orientatio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8(6). 861-878.
- Choi, Y.(2023). Curriculum, citizenship, migration. In: Tierney, R.J., Rizvi, F.,

Erkican, K.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2. 46 - 52.
Elsevier.

Choi, Y., and Y. Kim.(2020). Deconstructing neoliberalism in global citizenship discourses: an analysis of Korean social studies textbooks.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61(4). 464-479.

<자료>

교육부. 2015 세계시민교육(GCED) 중앙선도교사 발대식. 교육부 보도자료.
2015. 3. 20일자

교육부 · 17개 시 · 도교육청. 2022년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 운영 현황[2022].
2022. 9. 1일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schoolinfo.go.kr/si/po/pnsipo_a01_s0.do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별(4,5교시) 지원
자 현황 보도자료. 2022. 9. 5일자.

Abstract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Specialized
Subject Curriculum in International Studies
Subject Specialized High Schools:
Implication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hoi, Yoonj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Yoon, Noah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ies Specialized Subject(ISSS) is a national level school curriculum area that most directly, specifically, and deeply reflects the objects and conten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like the existing ones applicable to a smal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ies High Schools, ISS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as more widely been adopted and offered in general high schools that promote global citizenship including International Studies Subject Specialized High School(ISSSH)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eration of ISSS courses in ISSSHs in 16 regions across the nation as of 2022 academic year. The findings show that a total of 77 ISSSHs nationwide offered 148 ISSS courses, showing an average of 1.92 courses per school. By region, there is a large gap in the course offerings from Gyeonggi, which provided almost 1/4 of the total, to Jeonnam having

no ISSSH. By subject, ‘World Issues & Future Society’ was most offered(18.2%) out of 11 subjects, while ‘International Economy’ was followed by 16.8 %. 12.8% of courses were operated as a joint curriculum among schools. In terms of evaluation, 88.5% of the subjects adopted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at a rate of 50% or hig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for evaluat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SSS curriculum and/in ISSSHs, and discussing implication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ies Specialized Subject Curriculum, International Studies Curriculum Specialized High Schools, 2015 Revised Curriculu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투고신청일: 2023. 06. 30

심사수정일: 2023. 08. 04

게재확정일: 2023. 08. 13.